

Friedrich von Hayek에 있어 個人主義 思想과 市場秩序*

李 榮 煥** · 蘇 秉 熹***

< 目 次 >

- I. 緒 言
- II. Hayek의 個人主義思想
- III. 個人의 限界와 社會秩序
- IV. 個人主義思想과 政府의 役割
- V. 競爭의 意義와 自發的 市場秩序
- VI. 結 言

I. 緒 言

Hayek는 오랜 기간에 걸쳐 政治, 經濟, 社會의 각 方面에 두루 방대한 양의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학문적 성과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에 시사해주는 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자칫하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려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의 학문의 숲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愚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Hayek는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 걸쳐 실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경제학 한 분야만 살펴보더라도 그는 자본이론, 경기순환이론, 화폐이론 및 시장경제이론과 경제학 방법론 등에 있어서 當代의 碩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통하여 최고수

*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회께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포항공과대학 교양학부 부교수

준의 연구업적을 남겼다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경제문제를 본질적으로 調整(coordination)의 문제로 파악하여 어떠한 경제질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의 학문적 관심과 업적이다.

한 경제사회가 주어진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으니 計劃(planning)과 市場(market)이 그것이다. 물론 각 경제사회는 그 발전의 정도에 따라 이 양자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중의 하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은 計劃이란 이른바 中央集權的 計劃(centralized planning)을 말하며 市場이란 개인들이 각자 分權化된 計劃(decentralized planning)을 모색하고 실현시켜가는 과정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 모두가 計劃이라는 공통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단지 計劃이 지향하는 목표가 사회 전반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인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발전시켜가는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Hayek의 대답은 분명하다. 즉, 개인이 참여하는 分權化된 計劃에 기초한 시장질서만이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경제질서인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自由市場經濟를 옹호해왔던 과거 고전학파들의 시장경제에 관한 경제철학을 계승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Hayek의 독창적이고 깊이있는 洞察을 발견할 수 있다.¹⁾ 시장경제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해서 그가 인식하고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에 와서 보다 발달된 분석수단을 통해서 더욱 정직한 이론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새삼 그의 洞察力에 놀라게 된다.

시장경제 또는 시장질서에 관한 Hayek의 신념은 투철한 哲學的 認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과거 自由主義의 발전에 있어 철학적 기초가 되었던 個人主義사상이다. Hayek는 個人主義 만큼 誤用되고 있는 용어도 없다는 점을 매우 중시하고 시장질서와 관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個人主義의 意義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였다.²⁾ 우리는 흔히 個人主義를 利己主義로 잘못 이해하

1) 시장질서의 본질과 작용에 관한 Hayek의 독창적인 사고를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저작들로는 Hayek(1936 : 1945a : 1947 : 1978)등이 있다.

2) 개인주의에 대한 Hayek의 견해를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Hayek(1945b)를 들 수 있다.

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個人主義란 여러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사회와 그 구성원인 각 개인들간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규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인류역사이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확고한 사상체계이다. 이러한 個人主義철학이 자유주의 발전에 있어 그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나아가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질서의 본질과 그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個人主義사상에 대한 이해가 그 先決要件이 됨은 자명하다. 이러한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일관된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Hayek의 사상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최근에 우리가 目睹하였던 社會主義 경제체제의 붕괴가 갖는 의미를 음미해보고 나아가서 시장경제의 발전의 역사가 日淺하여 아직도 사상적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 어떠한 示唆을 해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II. Hayek의 個人主義思想

1. 似而非 個人主義의 正體

사회라는 틀 속에서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모든 이념이나 정치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Hayek에 있어서 個人主義란 넓은 의미의 社會秩序의 形成過程에 대한 이론중의 하나로서 그는 個人主義가 마치 고립된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Hayek(1945b, 135)의 個人主義는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존재만을 인정할 뿐이며 사회를 개인들과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보려는 集產主義的 사회이론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主義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짓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각 개인의 행동과 그들의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인 主觀主義(subjectivism)와 함께 이른바 方法論的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

alism)³⁾를 자신의 이론체계의 방법론적 기초로 삼았던 것도 바로 個人主義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Hayek의 個人主義思想 가운데 과연 “개인”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은 시장질서에 대한 Hayek의 이론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현실이지만 어떤 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모호한 의미를 갖거나 때로는 반대 의미로 해석되기조차 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또는 社會主義는 일관성있는 하나의 이념체계로 인식되기 보다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권력의 상징조작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그 본래의 의미와는 매우 다르게 인식되기조차 한다. Hayek(1945b, 133)는 個人主義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個人主義에 반대되는 사상체계로서는 集產主義(collectivism) 또는 그 특별한 형태로서 社會主義(socialism)를 거론한다. 集產主義나 社會主義는 사회를 개인과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고 사회가 추구할 일련의 목적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中央集權的 計劃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한다. 흔히 社會主義는 사회정의, 공평한 분배등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生産手段의 私有化의 금지 및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실시를 그 방법으로 한다. 社會主義가 추구하는 목적은 비단 社會主義者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실현방법에 대한 주장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社會主義에 관한 논쟁은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社會主義의 경우, 방법은 목적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므로(Hayek 1944, 32-34) 목적이 무엇이든지간에 이러한 방법들을 集產主義라고 지칭한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앞서서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社會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社會主義는 集產主義의

3) 主觀主義란 고전학과가 경제학의 대상인 상품의 객관적인 가치결정에 관심을 집중시켰던데 반해, 가치평가에 관여하는 주체로 관심을 이동시켜 상품의 가치란 사람들의 의도와 그들의 상품에 대해 가지는 견해를 통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한다. 한편 方法論的 個人主義란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個人主義에서 전제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인식태도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담고 있다: 첫째, 개인들만이 사회, 정치 및 경제적 활동 전반에 있어서 활발한 참여자들이다. 둘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개인들은 강제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행동한다. 셋째, 어떤 타인도 그 자신만큼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를 잘 알지는 못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amlin(1983)을 참조하라.

한 특별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社會主義에서는 中央當局이 사회의 이익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위해서 개인의 自由가 희생될 수도 있는 便法主義가 지배적이다. 명령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法的 機構를 통해서 자유를 철폐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Hayek(1945b, 143)는 Acton卿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의 뚜렷한 대상이—그것이 한 계층의 이익이든 국가의 안전 또는 권력이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또는 어떤 투기적인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든—국가 최고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때는 언제나 국가는 그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절대적으로 되어 버리고 만다.”

자유로운 문명의 필요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사회적 과정의 자발적인 형성을 파괴시키기는 힘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파괴된 基盤을 일부러 다시 재건하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일 수도 있다.

그런데, 個人主義와는 전혀 반대인 集產主義 또는 社會主義로 연계시키는 架橋 역할을 하면서 현대 社會主義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중에, 그 기원을 個人主義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프랑스와 대륙의 저술가들 이를테면 Rousseau와 중농주의자들 그리고 Descartes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合理主義的 個人主義者들의 주장이 바로 그러한 個人主義로서 Hayek는 이것을 似而非 個人主義라고 단언한다.⁴⁾ 似而非 個人主義가 標榜하는 합리주의의 毒素은 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조직된 사회를 지향하는 촉진제인 동시에 그런 성향의 결과이기도 하다.

似而非 個人主義는 격리되었거나 自己完了的인 個人들(isolated or self-contained individuals)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전체를 하나의 普遍的 統合體(entities sui generis)로 이해하려고 하여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질서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설계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合理主義에 맥을 대고 있는 似而非 個人主義는 궁극적으로는 集產主

4) Hayek(1945b, 133-34)는 19세기 고전과 경제학파들 가운데 적어도 공리주의자들과 급진적인 사상가들은 이러한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Harrod(1946)도 지적하였듯이 사이비 개인주의와 그렇지 않은 개인주의를 구분하는데 있어 Hayek가 생각했던 기준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義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Descartes류의 合理主義的 個人主義나 Rousseau류의 社會契約論的 個人主義⁵⁾는 모두 社會制度에 대한 設計理論(design theory of social institu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類의 個人主義는 인간의 이성을 “大文字로 표시된 理性(reason with a capital R)”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Hayek(1945b, 136)는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온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갖추어질 수 있으며 인류가 성취한 과업은 이성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개인의 이성의 통제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개인의 이성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믿음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성에 의해 설계되지 않은 것이거나 이성으로 충분히 알아내기 어려운 것은 결과적으로 輕視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似而非 個人主義는 인간 개인의 이성의 통제 아래 있는 社會的 過程만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社會主義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진정한 個人主義의 本質

진정한 個人主義는 사회가 인간의 意識的인 設計에 의해서가 아니라 自發的인 協同과 合作 및 예측하지 못했던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사회질서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Hayek가 지적한, 個人主義에 대해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잘못된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個人主義가 마치 이기주의를 禮讚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個人主義가 개인행동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個人主義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容認하는 것은 다른 행동은 배제하고 이기적인 행동만 하라는 암시가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라도 성취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일 뿐이다. 또한, (사회적 과정을 경험하기 전의) 개개인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5) Hayek(1945b, 137)는 사회계약론적 개인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인 사회적 산물이란 개념은 불가능하다. 둘째, 모든 사회적 과정은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을때에만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만들어 질 수 있다.

가정이 個人主義의 前提條件인듯이 알려진 것도 그릇된 것이다.⁶⁾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만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를 밝혀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재능과 기술을 합한다면 무한히 다양하고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에 비한다면 한 개인의 재능과 기술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질과 능력에서 평등하다는 주장이 마치 個人主義의 要諦인듯이 생각되는 것도 또한 그릇된 것이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간은 아무도 없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재능이나 성향에 있어서 완벽하게 평등하다고 해도 社會組織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실제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것”이라고 Hayek(1945b, 141)는 주장한다. 分配의 平等을 추구하는 分配的 正義의 실현과 개인의 자유의 보장은 서로 相衡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의 결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效用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補償의 상대적인 크기도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의 실현된 부분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므로 분배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意圖의 善惡 등과 같은 주관적인 관점에 대한 판단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Adam Smith가 옹호한 社會體制는 악한 자가 최소의 害惡만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 그는 인간이 최고의 상태에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는 관심이 없었으며 인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社會體制를 생각하였던 것이다(Hayek, 1945b, 137-38). 진정한 個人主義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면서 개인 자신의 選擇과 動機가 은연중에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私有財産制度를 기초로 한 규칙과 원칙의 공정

6) 앞의 각주 3에서 논의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는 개인과 타인간에 있어서는 그 개인보다 자신의 일을 더 잘 아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개인 자신의 일로서 개인이 사회적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로운 일과 그 개인이 사회적 과정을 겪고나서 알게된 그것과를 비교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왜곡된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적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個人主義가 利己主義를 유발한다는 도덕적 견지에서 이 제도아래에서의 個人主義는 별로 좋지않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아니면 개인의 이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전체를 위한 동기를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개인행동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뢰하는 것과의 兩者擇一이라고 하겠다. 만약에 후자를 택한다면 바로 似而非 個人主義가 저지른 것과 같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致命的인 自慢心(fatal conceit)에 근거한 誤謬를 범하여 社會主義나 集産主義의 길로 빠지고 만다.⁷⁾

진정한 個人主義의 본질은 인간 개인의 지적 능력과 이성적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는 謙虛한 態度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은 단지 부분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인간은 비이성적일 수도 있으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실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고쳐지게 된다고 믿는 영국의 個人主義사상을 Hayek(1945b, 133-34)는 진정한 個人主義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個人主義는 Locke, Mandeville 및 Hume등에 의해 발전되어 J. Tucker, A. Ferguson 그리고 Smith와 E. Burke에서 꽃피웠고 19세기에 와서 Tocqueville과 Acton卿에 의해서 완벽하게 표현되었던 것이다.⁸⁾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우리는 자발적인 사회적 산물의 형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自發的 秩序로서 시장질서의 전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진정한 個人主義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진정한 個人主義의 기본적인 태도는 인류가 업적을 이루어 놓은 과정은 미리 설계되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진실로 한 개인의 知能을 超越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7) 여기서 Hayek가 말하는 치명적 자만심이란 사회주의가 좌절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의 이상에 집착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신봉하는 西歐 지식인들의 理性的인 경향을 말한다(Henderson 1989, 350).

8)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Harrod(1946)는 어떤 사상이 진정한가(true) 아니면 사이비(false)인가를 판정하려면 적어도 6가지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Hayek의 분류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Harrod에 의하면 Locke는 이성주의자였으며 Bentham은 반이성주의자였지만 급진주의자였다. 진정한 개인주의가 반이성주의적이라면 Locke대신 Bentham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흔히 Adam Smith와 그의 후계자들이 엄격하게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경제적 인간”의 전형을 만들어 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개개인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하였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個人主義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이다.

Ⅲ. 個人의 限界와 社會秩序

1. 個人의 知識과 理性的 限界

아무리 박식하고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일 개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 전체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습득해 가는 개인의 知識의 틀은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형성되며 이렇게 습득된 경험에 바탕을 둔 개인의 知識은 주관적이고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개개인은 다른 경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게 마련이다. 정체인 사회란 없고 사회는 항상 진화해가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직접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개인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는 외부인이 판단할 수 있는 知識은 제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박식한 情報수집가라고 할지라도 全知의 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

그렇다면, Hayek에게 있어 知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知識이란 바로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情報를 의미한다. Hayek(1945a, 80)는 이러한 知識을 크게 두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과학적인 知識”(scientific knowledge)으로서 주로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과 장소의 특별한 상황에 관한 知識”(knowledg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ime and place)을 말한다. 전통적으로는 첫번째 知識만을 강조해 왔던데 반해서 Hayek는 두번째 종류의 知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각 개인은 적어도 이러한 知識에 있어서 다른 어

는 누구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⁹⁾ 현실이란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대해 어떤 의미있는 선택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으며 새로운 계획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문제란 바로 이러한 시간과 장소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흔히 경제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작은 변화들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통계적 집계치(statistical aggregates)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이른바 “大數의 法則”에 의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Hayek가 강조하였던 두번째 知識은 그 본질상 통계적으로 파악되어 중앙집권적인 기구에 전달될 수 없는 知識이다. 이러한 知識은 그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 질 수 밖에 없으며 그 자신만이 적절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분권화된 방법으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경제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知識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관련된 知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理性이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된다면 理性의 바탕은 知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사유할 수 있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知識이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면 설사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자체는 완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단편적인 知識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은 적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이성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 못된다면 이성을 높은 臺座에 올려놓고 사회진화의 유일무이한 지침으로 삼는 愚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社會進化의 과정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Hayek의 인간에

9) 이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각 개인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식이 가격체계를 통해서 전달되고 교류되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Hayek는 오늘날 최첨단의 이론과 분석기법으로 무장된 이른바 차등정보(differential information)하에서 가격체계의 역할을 다룬 최초의 학자로 생각된다 여기서 Hayek의 통찰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정보적 균형(informational equilibrium)의 문제를 Hayek는 1940년대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관한 관점은 反理性主義的(antirationalistic)이기조차 하다. 그는 인간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뿐인 비이성적이고 과오를 범하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개인이 저지르는 과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社會的 過程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2. 社會秩序로서의 社會的 過程

社會的 過程은 社會制度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社會制度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文明의 산물이다.¹¹⁾ 文明은 자연의 선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인위적인 設計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文明은 인간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진화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社會制度가 그러한 진화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 남은 것은 그것을 채택한 집단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의 크기에 의해 그러한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제도가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한 시대의 몇몇 인간의 지능으로 변조되고 발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 살아남은 사회제도는 인간행위의 행태적인 변화의 결과이지 인간의 계획이나 설계에 의해 고안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해력 자체가 文明의 산물인 것이다. 인간이 계획하지 않은 사회질서중의 한 예로 Hayek는 言語와 貨幣를 들고 있다. 言語는 한 이성적인 인간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유용하기 때문에 발전해 왔고 살아남은 것이며 貨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류의 文明은 그 나름으로의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생동하고 있는 전체의 틀속에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Hayek는 개인행위의 定規性(regularity)과 그것이 산출해 내

10) 이러한 Hayek(1945b, 135-138)의 견해는 본질적으로 영국의 개인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dam Smith와 그 후계자들은 인간이란 원래 게으르고 무례하며 낭비적인 존재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들을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상황의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반해서 Rousseau류의 사회계약론적 개인주의는 모든 사회적 과정은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11) 혹자는 제도를 자연발생적인 제도와 인위적인 제도로 구분하지만, Hayek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회제도라고 생각했다. 사회제도는 성장과 진화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Hayek의 사회제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Butler(1983, 15-40)를 참조할 것.

는 사회 전반의 定規性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安定的인 秩序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행위의 定規性이 필요하다. 定規性이란 어떤 명령에 의한 규칙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알아낼 수 있는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원칙은 특정한 反社會的인 행동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유행위에 대한 裁量權을 상당한 부분에 걸쳐 허용한다. 개인행위의 원칙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로서의 社會全般的 질서는 너무나 복잡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들이 가장 좋은 것들인지를 事前에 잘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한 가지 指針이 있다면 이제까지 잘 작동되어 온 규칙들이 괜찮은 것들일 것이라는 정도이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려 한다면 사회 내의 미묘한 相互聯關性을 망쳐놓게 되기 쉽다. 현존하는 法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복잡적으로 형성된 사회 자체를 말살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보수주의적 성향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의 본성에 적합한 사회질서나 법의 체계만이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존속할 수 있다는 입장과 단순히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保守主義는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¹²⁾

사회현상의 경우에 있어 개별주체들은 나름대로의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며 이것이 사회현상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또는 문화적 원리와 상충된다면 사회는 무질서에 빠지게 되고 이 두 개의 원리가 서로 잘 조화를 유지한다면 사회는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Hayek는 보았다. 그에게 질서의 의미는 “여러가지 종류의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간적 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전체의 어떤 일부를 알게 됨으로써 나머지에 대해 정확한 기대를 형성하거나 적어도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기대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形勢”로 인식되었다.

¹³⁾ 이와 같이 질서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며 이것이 命令과

12) Harrod(1946)가 Hayek의 개인주의사상에 대해 제기했던 의문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Hayek의 反理性的인 입장이 충분히 수긍은 가지만 그것이 個人主義思想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오히려 Hayek의 입장은 最上의 保守主義(the best type of conservatism)를 옹호하려 했던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Hayek가 단순히 보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여러 글(Hayek, 1947; 1960)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13) 이 정의는 Hayek(1973)가 L.S.Stebbing의 *A Modern Introduction to Logic*(London: 1933, 228)에서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질서란 간단한 현상을 분석하는데는 법칙이 이용되듯이 보다 복잡한 현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개념으로서 때때로 질서대신 체계(system), 구조(structure)또는 방식(patter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秩序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러한 질서는 크게 人爲的 秩序(made order)와 自發的 秩序(spontaneous order)로 구분된다.¹⁴⁾ 前者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질서를 말하며 後者는 어느 누구도 고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사회내부에서 탄생한 질서를 말한다. 사회질서의 일부로서 시장질서는 바로 自發的 秩序이다.¹⁵⁾

社會制度, 傳統, 慣習, 價值 등등은 現世代 이전의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축적되어온 知識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社會秩序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知識을 제공하는 그 나름으로의 智慧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회는 변화하는 상황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인류문명의 歷史와 傳統에 뿌리 내리고 있는 현존하는 社會秩序를 파괴하는 社會設計(social design)가 마치 어떤 한 賢者의 이성적 판단 위에 세워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인간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로를 제시해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集產主義나 그 특수한 형태로서 社會主義의 自慢心에 가득찬 태도는 불완전한 知識과 이성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認識을 바탕으로 한 Hayek의 겸손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인간의 理性의 능력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우리의 문명을 능가해서 우리의 규칙과 가치를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고 믿는 것은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회라도 政府나 中央當局의 指示를 받는다면, 그 사회는 當局이 보유하고 있는 知識의 量에 의해 한계가 지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4) 이 두 질서를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로서 Hayek는 그리스어의 taxis와 kosmos를 사용하였다. taxis는 인위적인 질서를 kosmos는 자발적인 질서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Hayek(1973, 37)을 참조하라.

15) 이 자발적 질서는 경제학의 제1의 원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제학을 하나의 사회과학으로 성립케하는 근본원리이기도 하다. 19세기의 경제학은 대부분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나 20세기의 경제학에서는 이에 대한 反動이 강하였다. 자발적 질서에 의한 경제적 문제의 조정에 대한 비판에는 크게 4가지 흐름이 있으니, 첫째, Keynes적 전통; 둘째, 현대적 Ricardo 학파의 비판; 셋째, 國家計劃의 새로운 추세; 넷째, 오스트리아학과 내부로부터의 비판이 그것들이다. 상세한 내용은 O'Driscoll(1977)을 참조할 것.

IV. 個人主義思想과 政府의 役割

1. 限定된 強制力の 行使

個人主義에 기초한 社會秩序는 사회전체에 적용되는 強制力の 總合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에만 개개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Hayek, 1988, 33). 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시대에 그리고 그러했던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의 발달과 유럽문명의 개화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개인들이 自發的이고 自生的인 協同과 合作을 할 수 있는 自由의 보장은 個人主義의 기본 조건이므로 個人主義로부터 나오는 실용적인 결론은 모든 強制的이거나 排他的인 權力的 사용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個人主義가 無政府主義와 같이 사회에서 강제적인 권력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강제적인 권력의 사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想起시키고자 할 뿐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強壓을 防止하기 위한 強制力の 행사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強制力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데도 強制力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정부에게 부여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에 대해 個人主義가 반대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할 영역과 행사되지 말아야 할 영역의 적절하고 명확한 區分이 요구된다는 점을 個人主義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정부는 훨씬 더 폭이 넓고 큰 사회라는 조직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개인들간의 협동이 최대한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행동지침의 骨格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Hayek는 정부의 強制力은 두 가지 종류로 限定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治安과 같이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國防을 위시한 公共財의 提供과 같이 시

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Hayek(1947, 110-11)는 시장질서의 바람직한 상태에서 경쟁은 정부의 활동이 없는 경우보다 일정한 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유효하게 그리고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Hayek(1945b, 146-47)도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단지 個人主義의 기본 원리에 충실할 수 밖에 없으며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통과 인습을 확립함으로써 그러한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을 뿐이다.

장의 실패를 피할 수 없는 분야에서 유용한 사회적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정부 자체도 예측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또한 개인 행동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不確實性은 정부가 제거해 주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 확실한 情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인행동의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情報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서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개인의 責任의 테두리를 設定하여 알려주는 原則과 規則을 闡明함으로 해서 정해진 法안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원칙이란 개인들끼리 서로 相馳되는 목표들로부터 개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해 주는 수단일 뿐 한 묶음의 미리 정해진 목적들이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全知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세부적인 원칙까지 미리 정해두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필요로 한다. 규칙에 의거한 統治 즉 法治國家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개인이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指針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잘 따르도록 만드는 데에 局限되어야 한다.

2. 公正한 規則의 執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규칙에 근거한 特權이나 保護나 법의 적용에 대해서 個人主義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은 개인이 成就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인간을 모두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모든 인간 자체를 평등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個人主義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個人主義가 원하는 것은 단지 인간을 대우할 때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설혹 정부가 정의나 평등을 위해서라는 名分을 내세우더라도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Hayek(1945b, 152)는 “民主主義는 自由에 있어서의 平等을 추구하지만, 社會主義는 抑壓과 隸屬에 있어서의 平等을 추구한다”고 말한 Alexis de Tocqueville의 警句를 인용하고 있다.¹⁷⁾

17) Alexis de Tocqueville, Oeuvres complètes, IX, p.546에서 인용한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多數의 견해가 공동의 행동을 결정짓기는 하지만少數의 주장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Hayek는 주장한다. 반드시 다수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소수의 견해가 시간이 지나면 다수의 견해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겠고, 특수한 전문분야에서는 강제력의 행사만 없다면 소수의 전문가의 견해가 우세한 견해로 파급되어 마땅하기 때문이다. 競爭社會의 장점은 바로 이런 소수의 先覺者가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서 사회전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숙명적이고 위험한 誤解는 다수의 견해를 항상 眞理이고 拘束力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個人主義는多數決의 全能性에 대한 迷信的인 盲信을 거부한다.

自由社會란 개인이 他人의 意志에 隸屬되는 것과 강제력의 행사가 最少화된 사회를 말한다. 자유사회는 개인이 강제로 이리저리 몰아세워지는 사회가 아니다. 자유사회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규칙만 지키면 되는 사회이다.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어야지,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개인에게는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결정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 특정한 결과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해서 예외적이고 변칙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된다. 법의 집행은 정해져 있는 사회적 게임의 규칙을 지키게 하는데 있다. 그 게임의 勝者가 될 사람을 事前에 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자유를 對價로 치룬 사회적 成就是 단기적일 수 밖에 없고 개인의 자유에 토대를 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생활의 惠澤보다 못한 것이라고 Hayek는 보고 있다. 社會進步(social progress)에는 새로운 발견의 蓋然性を 높여줄 수 있는 사회적 興件의 마련이 關鍵이 된다. 자유는 예견할 수 없는 변화에 對應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다. 자유롭게 탐구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문명만이 創意力을 키울 수 있다. 진보란 사회가 강제로 動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激勵해 줄 수는 있는 것이다. 자유는 예기하지 못했던 向上을 가져온다. Hayek는 진정한 個人主義에 바탕을 둔 自由社會만이 人類文明의 進步를 가져오는 原動力을 기르게 된다고 보았다.

V. 競爭의 意義와 自發的 市場秩序

1. 市場秩序의 本質

오늘날 흔히 쓰이는 市場經濟라는 용어 대신에 Hayek는 市場秩序(market order)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굳이 시장질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흔히 “경제”라는 용어가,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해 다양한 목적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계획에 따라서 一團의 경제적 수단들이 배분되는 복잡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家計나 企業 하나 하나가 “경제”라고 불릴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흔히 國民經濟라는 것은 “서로 관련된 많은 경제들의 그물”(a network of many inter-laced economies)일 뿐이다.¹⁸⁾

또한 시장질서는 구체적인 명령이나 통제가 미치는 범위안에서만 적용되는 질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接觸이나 명령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넓은 범위에 까지 적용되는 廣範圍한 秩序(extended order)¹⁹⁾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질서란 自發的이며 廣範圍한 秩序로서의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交換(exchange) 또는 交易(trade)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것은 사전에 의도되거나 예상된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시장은 점점 그러한 질서가 미치는 범위를 확대시켜 나아갈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점점 위축되고 말 것이다. 현대 考古學에 의하면 교역은 농업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생산활동보다도 먼저 시작되었으며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교역은 사회에

18) 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Hayek(1976, 108)의 이러한 인식은 計劃(planning)에 대한 그의 인식과 일관성이 있다. 즉 보통 우리가 計劃을 말할 때는 中央集權的인 計劃을 말하지만, 그는 개별 기업이나 가계들도 計劃의 주체로 보았다. 단지 그 計劃의 성격과 범위가 다를 뿐이다.

19) 옛날에는 시야를 벗어나거나 명령이 들리지 않는 범위까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질서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심지어는 Aristotle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것은 씨족이나 부족사회 또는 군대조직의 경우를 생각하면 타당하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나아가서 본능적인 판단이나 단결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으로 호소할 수 있게 되면서 질서가 미치는 범위가 서서히 확대되었으며 결국 직접 접촉하지 않는 범위까지 일정한 질서가 작용하게 되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장질서인 것이다. 광범위한 질서로서 시장질서의 진화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Hayek(1988), 1장-3장을 참조하라.

있어서 질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Hayek 1988, 38-39).

시장질서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이나 책임을 할당해주는 규칙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질서는 아니다. 自發的인 秩序로서의 시장질서는 抽象的인 秩序인 것이다. 인위적인 질서는 구체적인 질서로서 그것을 설계한 사람의 목적에 봉사하지만 시장질서에는 이러한 특성이 없다. 시장질서는 사전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시장질서는 인위적인 질서보다 훨씬 복잡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질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전부 이해하기조차 어려우며 의도적으로 안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질서에 대한 어느 特定人의 統制力은 制限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자발적인 질서로서 시장질서는 그 구성원들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즉 그들의 행동에 定規性이 있음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 구성원들의 행동에 定規性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자발적인 질서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현상의 경우 이른바 熱力學의 제2법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구성요소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 결과 완전한 無秩序를 창조하게 된다. 사회현상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²⁰⁾

2. 自發的 秩序로서의 캐탈락시

自發的 秩序로서 시장질서는 서로 알지 못하며 만날 수 없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계획을 調整해 줌으로써 그들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Hayek는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상호 관련된 경제의 체계를 자신이 고안해 낸 用語로 “캐탈락시”(catallaxy)라고 불렀다.²¹⁾ 따라서 “캐탈락시”란 財產權

20)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즘이나 중국의 문화혁명의 경우가 이러한 무질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catallactics”란 용어는 L. von Mises등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는데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한 이 용어는 “교환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하다”또는 “적을 친구로 바꾼다”라는 뜻을 갖는다. 여기서 Hayek는 “경제”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시장질서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catallaxy”를 만들어 냈다.

과 契約에 관한 法을 지키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장이 창출해낸 특별한 自發的 秩序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질서는 때때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優先順位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없다는 이유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바로 “캐털랙시”로서 시장질서의 장점인 것이다.

강제적이고 具體的인 목적을 抽象的인 행동의 規則으로 代替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대시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캐털랙시”를 통하여 自發的인 交換을 가능케 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교환은 所有權의 確立과 상호 합의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환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요구가 다룰수록 교환을 통한 이득은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교환을 통한 이득이 분업의 촉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내에서도 가능하다. “캐털랙시”의 중요한 기능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든 아니든 사람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知識과 目的을 調和시켜 주는데 있다. 즉 “캐털랙시”에서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기적이든 아니면 이타적이든간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 결코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조직보다도 우월한 것이다. 시장질서의 본질을 이와같이 이해할 때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자명해진다. 政策이란 어떤 특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상이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最善의 機會을 保障해 주는 추상적인 질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 놓고 시장질서의 테두리내에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이와 같은 본질을 갖는 시장질서의 작용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것을 하나의 “게임”(game)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Hayek는 이것을 “캐털랙시 게임”(game of catallaxy)이라고 불렀다.²²⁾ 그리고 이 게임의 결과는 技術과

22) Hayek(1976, 115)는 시장의 특성을 하나의 게임으로 파악해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자신에게는 하나의 여건을 형성하고 자신은 이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획은 가격체계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여서 시행착오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정된다. 오늘날 발달된 게임이론을 시장경제에 적용한 이른바 “市場게임”(market game)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고를, 비록 구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Hayek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運의 混合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게임의 본질을 Hayek(1976, 115)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캐털랙시게임이란 富를 창출하는 게임이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각 경기자에게 情報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자가 직접 알지 못하는 다른 경기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주며 그러한 情報가 없었다면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를 기존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情報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價格體系인 것이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게임의 규칙내에서 價格體系가 전달해 주는 情報를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경기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보다 훨씬 우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서 추상적인 게임의 규칙은 바로 누구에게 무엇이 귀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競爭의 秩序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規則이다. 이러한 규칙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가치란 게임의 결과로서만 결정될 뿐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캐털랙시게임”에 있어서 정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이 게임의 모든 속성을 다 이해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無知와 不確實性으로 인해 자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규칙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람들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무작위로 선택된 어느 사람의 경우든지간에 그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주는 것이다. 결과만을 놓고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뿐 自發的 秩序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특별한 질서는 모두 “干涉”(interference)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간섭은 “캐털랙시게임”에 있어서 오히려 無秩序를 창출할 뿐이며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²³⁾ 따라서 시장질서를 통해

23) 이러한 예를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광범위한 부동산투기의 열풍이라는 무질서를 창출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간섭이 자발적 질서를 강화시키지 못한 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다가 엄청난 사회적 무질서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질서란 사전에 결정된 목적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여러가지 수단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들이 개별적으로 추구되며 정당한 게임의 규칙으로 인해 無作爲的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회가 증대되는 그러한 질서인 것이다.

3. 價格體系와 市場均衡

Hayek에게 있어 市場秩序란 경제내에 散在해 있는 知識을 하나의 情報傳達體系(communication network)로서의 價格體系를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격체계가 이러한 知識 또는 情報를 교류시켜 주는 현실적인 과정에서의 특성이다. 사람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신의 계획과 관련된 정보만 얻으면 된다. 이러한 情報的 교류의 과정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람들의 계획이 서로 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작용에 있어서 知識의 낭비를 節約시켜 준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가격체계의 변화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情報만을 추출해서 사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격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이 점은 가격이 경직적일수록 더욱 그러하지만—완전한 지식을 가정하고 조정의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은 가격체계의 진정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시장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격체계란 인간이 의도적으로 고안한 것도 아니며, 이러한 가격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보통 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公式이나 規則들을 이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관습과 제도를 발전시켜 우리의 文明의 基礎로 삼아 왔던 것이다. 가격체계란 바로 그와 같이 형성된 하나의 社會的 產物인 것이다.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가격체계의 핵심적인 공헌은 한 시장으로부터 다른 시장으로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있다. 중앙집권적인 계획이나 시장을 통한

분권화된 계획이나 그 경제적 성과는 오로지 경제내에 산재해 있는 지식을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Hayek가 사용한 知識이라는 用語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지식의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전학파의 均衡分析과 대비해서 Hayek가 생각하였던 시장질서에서의 경쟁과 균형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Hayek의 시장질서의 본질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Hayek의 통찰력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²⁴⁾

먼저 Hayek는 이른바 純粹競爭 또는 完全競爭을 가정한 市場均衡의 분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Hayek(1936, 33)는 무엇보다도 傳統的인 均衡分析이란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무런 知識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순한 同義重複(tautology)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왜냐하면 현실의 因果關係에 관해서 무엇인가 설명해줄 수 있으려면 지식의 습득과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균형분석에서는 시장에 참가한 경제주체들은 필요한 모든 지식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분석은 그것이 제시할 결론을 이미 假定속에 모두 잉태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지만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Hayek가 반박하였던 이른바 科學主義(scientism)인 것이다.²⁵⁾

나아가서 미래의 상태나 위험의 정도에 대한 또는 不完全競爭下에서 필요한 이른바 豫見(foresight)의 문제로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면 전통적인 균형분석의 문제는 더욱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즉 신고전학파의 균형분석에서는 미래에 대한 完全한 豫見(perfect foresight)을 前提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動態的인 조정과정에서는 올바른 豫見(correct foresight)조차 성취하기가 매우

24) 물론 이것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쟁에 대한 개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지식이 상호 교류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람은 Hayek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성립하는 방법론을 일련의 가정체계하에서 사회과학에 그대로 도입하려는 입장을 말하며 오늘날 公理主義의 접근(axiomatic approach)이 바로 이러한 과학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Hayek는 이른바 과학주의가 간과한 현실 사회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인지(perception) 그리고 의도(intent)와 예상(anticipation)을 들었으며 그 결과 主觀主義(subjectivism)를 표방하였던 것이다. Hayek에 의하면 경제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은 대부분 이 주관주의를 일관성있게 응용한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렵다.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豫見은 번번히 좌절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의 조정과정은 기껏해야 施行錯誤의인 조정과정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Hayek에게 있어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이러한 時際間的 調整(inter-temporal coordination)의 문제에 있었다. 현실속에서 지식은 분산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식이 서로 교류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균형분석도 이 중요한 動態的側面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4. 探索過程으로서의 競爭과 自發的 市場秩序

市場秩序에 있어서 知識의 역할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Hayek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競爭의 概念에 대한 해석이다. 아울러 이 두개의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시장질서에 대한 Hayek의 해석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ayek(1946, 92-94)는 경쟁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와 실제 현실에 있어서 기업가들이 해석하는 경쟁의 의미는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반박하였다. 즉,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完全競爭과는 다른 실제의 경쟁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해롭다는 인식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쟁이란 시장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개인들의 행동이나 계획이 집행되고 조정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시간의 개념을 무시한 空虛한 概念으로서 이른바 “競賣人”(auctioneer)과 같은 假想的인 단일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의 조정이라고 하는 시장과정의 본질을 단순히 虛構的인 競賣人을 가정함으로써 한사람의 문제로 바뀌버렸고 따라서 남은 과제는 순수한 논리적인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市場過程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知識을 바탕으로 행동하려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이 처해있는 “與件”(data)이 바뀌면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게 되며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속에서의 경쟁이란 바로 제한되고 분산되어 있는 知識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이 보다 나은 기회-생산의 경우든 소비의 경우든-를 찾아서 摸索하고 發見해가는 過程인 것이다. 이 과정을 Hayek는 경

쟁의 본질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내에 실현 가능한 개인 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 바로 有效競爭市場(effectively competitive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Hayek에 있어서 有效競爭市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기술한 대목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는 전통적 의미의 완전경쟁시장이란 오히려 경쟁이 終了된 상태라고 생각했으므로²⁷⁾ 이런 시장은 이미 경쟁의 효능이 정지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와는 대조되는 유효시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Hayek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쟁이란 오히려 경쟁이 終了되어 버린 狀態를 의미한다고 단정한 이유는 실제적인 시간의 경과속에서의 경쟁이란 누가 더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어떤 소비자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끊임없는 探索過程(discovery procedure)이기 때문이다.²⁸⁾ 즉, 그는 情態的인 의미에서의 경쟁의 개념대신에 動態的인 의미에서의 경쟁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가 생각했던 有效競爭市場이란 오늘날 흔히 논의되는 것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끊임없이 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탐색과정으로서의 동태적 경쟁질서를 의미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생산자들이 서로 相異하고 소비자들도 서로 相異한 현실경제에서, 同質의인 상품이 생산 및 거래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또한 대부분이 差別化되어 서로의 대체성에 한계가 있는 수많은 상품들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것은 지극

26) 有效競爭이 政府가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Hayek는 19세기의 自由主義者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는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財産과 契約에 관한 法, 企業과 結社(특히 勞動組合)에 관한 法 그리고 獨占과 準獨占의 지위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문제, 課稅의 문제 및 國際貿易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오늘날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有效競爭의 확보를 위해 Hayek(1947, 112-18)가 제시한 財産權에 대한 견해이다. 그는 일찌기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특허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오늘날 재산권의 범위와 그 행사에 따라 많은 문제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유효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산권의 범위와 그 권리행사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해 준다고 생각된다.

27) Hayek(1978, 259)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제학자들은 흔히 경쟁이 창출하는 질서를 均衡으로 부른다—이것은 다소 잘못된 용어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均衡이란 사실들이 이미 모두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경쟁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8) 探索過程으로서 경쟁의 의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Hayek(1978)를 참조하라.

히 타당한 문제인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Hayek가 전통적으로 不完全競爭으로 인식되어 온 것을 오히려 경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보다, 정태적인 의미에서의 신고전학파의 균형개념을 확대, 발전시켜온 오늘날의 市場均衡理論의 萌芽를 Hayek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²⁹⁾ 다음 인용문(Hayek 1936, 38)은 그의 이러한 학문적 입장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의 근거로 삼고 있는 與件(data)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있어서 與件을 형성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정확하게 포함해야 하는 것은 여러 상이한 계획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探索過程으로서의 경쟁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비추어 무엇이 最善인가를 발견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與件을 감안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競爭이란 이러한 변화를 包括하는 過程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Hayek(1946, 106)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매우 시사적이다 :

“競爭이란 본질적으로 見解를 形成하는 과정이다. 情報를 전파함으로써 경쟁은 우리가 경제체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할 때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화와 통일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경쟁은 무엇이 최고이고 가장 저렴한가에 관한 사람들의 見解를 창출해 주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만큼 가능성과 기회에 관해 충분히 알게되는 것도 경쟁때문인 것이다.”

Hayek는 시장과정에 실제적인 시간을 도입하여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건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없이 바뀐다는 사실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與件속에서 발견적인 절차로서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파하는 市場過程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경제문제를 調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調整

29) 오늘날 기대(expectation)를 포함하는 시장경제이론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른바 합리적 기대균형이론(rational expectations equilibrium)과 Hayek의 견해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보(지식)의 전달체계로서 시장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의 전달은 경쟁이라는 探索過程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Hayek의 견해는 당시의 학문적 풍토하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대, 경쟁 및 균형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최초로 정리한 Hayek(1936)는 그의 학문적 성격을 예고하는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調整의 失敗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調整의 失敗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市場秩序를 완성시키는 것이다.³⁰⁾

V. 結 言

인류 역사 이래 다양한 제도와 社會秩序가 등장하고 그리고 소멸해 갔지만 市場秩序만은 꾸준히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사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眺望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시장질서의 擴大 및 深化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장질서야말로 인간의 本性에 가장 적합한 질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이에 기초한 다양한 價值追求를 억압하는 어떠한 사회질서도 중국에 가서는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가 目睹하였던 일련의 社會主義體制의 붕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엄숙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일찌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예견하였던 Hayek의 洞察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의 경제사상을 음미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社會主義의 終焉과 시장의 승리를 자축하거나 아니면 平等主義의 虛構性을 논박하고 自由主義의 美德을 찬양할 그러한 역사적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질서의 확대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市場은 여러 사람의 共通된 目的과 厚生을 위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지만 私利私慾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에, 개개인은 각자가 다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사람들의 목적의 달성도 결과적으로 도와주게 된다.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같이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합의하지 않고서도 각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이 市場機構가 우수한 점이다. 이것은 시장질서의 특별한 속성으로부터 나

30) 개인들간의 조정의 실패가 시행착오적인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모두 해결되어 버린다면 자발적 질서로서 시장질서에는 아무런 인위적인 간섭이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는 현상들은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Hayek(1947, 111-12)도 일찌기 이러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위생(sanitary)과 보건(health)에 관한 서서비스분야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배격한 것은 아니었다.

오는 것이다. 시장질서는 의식적인 설계나 계획의 산물이 아니다. 시장은 어떠한 가치의 尺度나 목적의 位階秩序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財產權의 所在와 어떤 방법으로 상품들이 同意에 의해서 교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비록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서로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상호연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Hayek(1976, 112-13)는 시장이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관계는 성립될 수 없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시장질서는 상호 경쟁적인 목적들을 단지 화해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질서의 바람직한 展開를 억압할 수 있는 反시장적 힘으로서 獨占과 政府의 不當한 干涉이라는 두 개의 위협이 아직도 세계의 도처에서 그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진정한 個人主義가 편협한 보수주의로 흐르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 확대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자제하며 끊임없는 모색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맞게 自發的 秩序를 발전시켜 나아갈 때 비로소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질서의 붕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보다는 내적 갈등과 모순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곧 인간의 도덕성과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사회질서도 붕괴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시장질서란 개개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普遍妥當한 規則을 준수해 나아갈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 個人主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 주고 누구나 똑같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정부의 긍정적인 기능이란 바로 자발적인 질서로서 시장질서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有效競爭을 확보해 줄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을 확충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지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시장질서를 그 본래의 의미에 맞게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自發的 秩序로서 시장질서는 진정한 個人主義思想을 그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질서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個人主義思想의 物的 基礎를 형성하고 있는 소유권 내지 사유재산권은 그 정당한 취득 및 권리행사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시장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正義와 自由란 정당한 財產

權의 行使를 前提로 함을 의미한다.³¹⁾ 오늘날 재산권의 형태와 종류는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고 또한 복잡해졌다. 그 결과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노출되어 왔으며 이것은 심한 경우에는 自發的 秩序로서 시장질서의 미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더러는 약탈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財産權을 확대시키면서 그러한 권리행사를 정당한 질서의 일부로 인식하기를 강요하는 傲慢과 獨善을 종종 행사해 왔다. 이런 편파적이고 부당한 規則의 違反과 秩序의 放棄 대신에 “캐탈래시 게임”에서의 보편타당하고 정당한 規則의 遵守와 타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존중되는 질서의 유지는 각 개인의 理性의 힘에는 限界가 있다는 겸허하고 절제된 자세로부터만 보장될 수 있다. 이런 自發的인 秩序의 유지만이 부당한 정부의 간섭을 피하는 길이다. 주어진 명령체계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면서 개인의 천박한 이기심만을 충족시켜 왔던 이제까지의 우리의 무책임한 자세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共同體의 삶의 터전으로서 自發的인 市場秩序를 구축하고 성숙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에 시장질서의 엄청난 量的 擴大를 이룩하였지만 이에 걸맞게 內的 深化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우리의 시장질서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말하기가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의 역사가 日淺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질서의 주체인 개개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학계든, 아니 개개인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질서를 뒷받침해 주는 우리의 經濟哲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은 공동으로 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哲學의 貧困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시장질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필요한 經濟哲學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진정한 個人主義가 그 基盤이 되어야 한다는 냉철한 自己省察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Hayek의 個人主義思想과 市場秩序에 대

31) Hayek도 절대적인 재산권을 신봉하거나 재산권의 무한한 행사를 용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John Sturart Mill의 (Hayek가 지적하듯이 Mill이 아직도 자유주의자였던 시절에 썼던) “정치 경제학의 원리” 초판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다: “사유 재산의 원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였다. 재산법은 아직까지 사유재산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고 있는 원리를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러한 법은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재산으로 만들었으며 제한된 의미에서의 재산을 절대적인 재산으로 만들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ayek(1947, 109-110)을 참조하라.

한 吟味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敎訓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Butler, E., *Hayek: His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Our Time*, New York : Universe Books, 1983.
2. Hamlin, A. P., "Procedural Individualism and Outcome Liberalism", 1983 : in J. C. Wood & R. N. Woods ed., *FRIEDRICH A. HAYEK : Critical Assessments*, Vol. IV, London : Routledge, pp. 16-29, 1991.
3. Harrod, R. F., "Professor Hayek on Individualism", 1946 : in J. C. Wood & R. N. Woods ed., *FRIEDRICH A. HAYEK : Critical Assessments*, Vol. II, London : Routledge, pp. 69-75, 1991.
4. Hayek, F. A., "Economics and Knowledge", 1936 :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Gateway Editions, Ltd., 1948.
5. _____ *The Road to Serfdom*, 1944 :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6. _____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1945 :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Gateway Editions, Ltd., 1948. (a)
7. _____ "Individualism : True and False", 1945 : in C. Nishiyama & K. R. Leube, ed., *The Essence of Hayek*,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b)
8. _____ "The Meaning of Competition", 1946 :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Gateway Editions, Ltd., 1948.
9. _____ "'Free Enterprise' and Competitive Order", 1947 :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Gateway Editions, Ltd., 1948.
10. _____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11. _____ *Rules and Order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12. _____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13. _____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1978 : in C. Nishiyama & K. R. Leube ed., *The Essence of Hayek*,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14. _____ *The Fatal Conceit : The Errors of Socialism*, London : Routledge, 1988.
15. Henderson, D. R., "Why Socialism Isn't Dead", 1989 : in J. C. Wood & R. N. Woods ed., *FRIEDRICH A. HAYEK : Critical Assessments*, Vol. IV, London : Routledge, pp. 350-353, 1991.
16. O'Driscoll, Jr. G. P., "Spontaneous Order and the Coordination of Economic Activities", 1977 : in J. C. Wood & R. N. Woods ed., *FRIEDRICH A. HAYEK : Critical Assessments*, Vol. III, London : Routledge, pp. 18-41, 1991.
17. Smith, V. S., "Markets as Economizers of Information : Experimental Examination of the Hayek Hypothesis", 1982 : in J. C. Wood & R. N. Woods ed., *FRIEDRICH A. HAYEK : Critical Assessments*, Vol. III, London : Routledge, pp. 364-379, 1991.